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 2016년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로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를 받아, 저희들을 속였으며, 저희는 현재 그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합덕으로 오게 된 동기

- 2017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기업 중간조직지원단체)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 7기에 선발되면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장○○멘토와 사회적기업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 인연이 되었습니다.

장○○멘토는 현재 명의신탁한 건물의 딸이며, 저희는 태안에서 사업을 이어가던 중, 합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여, 오게 되었으나, 오히려 독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이어주는 중간조직지원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자가,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건물의 소재지
합덕읍 덕평로 545



2017년 9월경사진(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장00멘토 가족이 명의신탁한 건물)



비어 있는 건물의 과거 인터넷 로드뷰를 살펴보니, 벽0동으로 오랫동안 일반 음식점 영업을 했던 곳이었고,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이 있고, 식당을 했던 자리라고 하여, 태안에서 합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

2017년 벽0동 이전후 건물 내부 사진



- before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막막한 내부 상태

2018년 1월 그해 겨울은 추위와 싸우며, 눈도 많이 왔고, 공사가 더뎠습니다. 영업을 2년전까지 했다고 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내부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라면 수도배관 및 건물에 대해 관리를 해야 했지 않나요?

여러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공사로 철거부터 시작합니다. 겨울공사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현재의 모습을 보고 동네분들은 이야기 합니다.

돼지우리 창고가 호텔이 됐슈 라고..

2018년 건물 공사 진행 내부 사진



지금다시 하라하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는 못 할 듯합니다.
신축보다 더 공정이 많고 공사비는 한없이 늘어납니다.

손을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도계량기도 없고, 음식점에서 필요한 용량의 전기증설공사도 되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도 없어도 된다고 하셨던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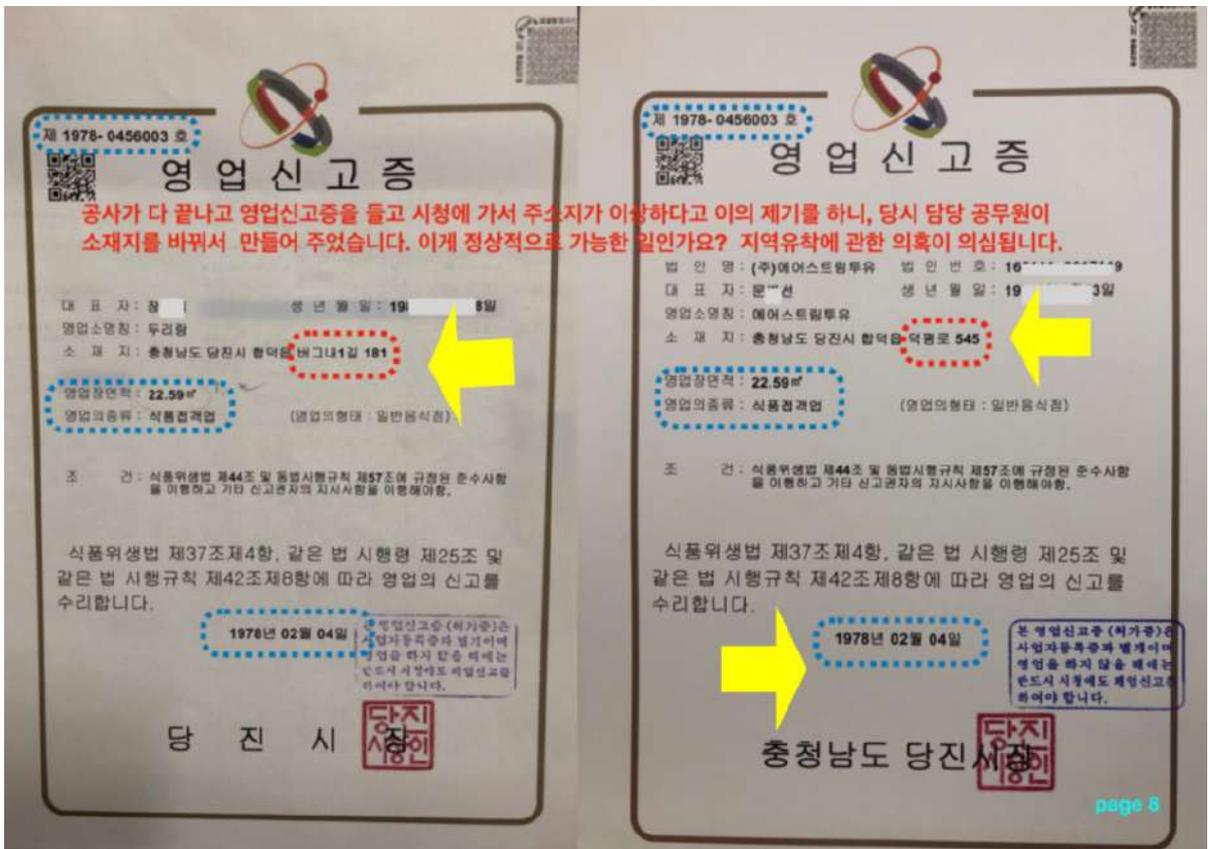
기존에 있었던 폐잔재며 ,수십년동안 도배로 ,덕지 덕지 붙어있었던 벽지를 직접 긁어낸다고,

몇날 며칠을 보내야 했는지...공사를 하며 합덕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들러보곤 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건물 2층은 용도변경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정집으로 개조하여, 장OO멘토 가족이 2016년부터 거주하였고, 그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1층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처리하겠지 생각하여, 모아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버그내길 181번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덕평로 545번지에서 월세를 받으려 생각을 하고 그사실을 무마 할수 있었을까요?



- 결론

또한, 지위승계신고시 필수 서류 (위임절차시 벽0동 사장님의 동의하에 인감증명, 신분증사본, 지위승계신청서, 을 첨부해야 마땅하나, 이 내용 무시하고 허위지위승계서를 만들고) 그것을 알면서 눈감아 준 당진시청 보건위생과, 요식업협회 구00씨와 당시 지방식품위생주사 이효수, 지방보건주사보 이재은, 지방보건주사 이계숙 팀장(현 당진1동 팀장)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묻고 지위승계신청서에 명의도용하여, 위조작성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은 다른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영업신고증은 폐업또는 지위승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자 지위승계에 권리금,시설비 제도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영업신고증을 그대로 들고 다른장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진시청 보건위생과 와 요식업 협회에서는 수십년 동안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실을 모를수가 있을까요? 없었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과연 이런 일이 한두 건 일까요?

또한, 현재 지금 충청남도 사회경제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장00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창업팀 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공문서,사문서위조를 통해 벽0동 당사자 동의없이, 허위영업신고증(주소지가 다른 허위영업신고증)을 장00 본인 앞으로 지위승계를 해놓고, 육성창업팀인 저희에게 다시 지위승계를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단체에서 정작 많은 사회적기업가의 멘토로서 모범이 되어야하는 사람이, 현재 당진에서 도시재000에서 강사로 만나고 있는 현실에, 정말 잠이오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당진시민분들께서는 이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러 당진 시청을 갔을 때, 정보공개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 지위승계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이유로 관련 서류열람을 거절하였고, 감사법무팀에서는 당시 당사자 벽○동 사장님과 함께 직접 보건위생과로 가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는 조언을 해줘서 벽○동 사장님과 함께 방문했는데, 관련서류를 저희에게 보여주줄수 없고 벽○동 사장님에게만 보여 줄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여분간 보건위생과 팀장이 벽○동 사장에게 “왜정시대 때부터 합덕은 이랬다” 라는 구구절절 회유를 계속해서 “제가 벽○동 사장님 자꾸 회유하지 마시고 관련서류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 것에 갑자기... 정애영 보건위생과 팀장이 일어나며 저에게

“새파랗게 어린년이!!!” “무식한 년 !!!” 년 빠져!!!”
라는 막말과 샷대질!!! 을 업무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염, 잠도 못자는 지경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중에 있습니다.

3년간 정말 드세다는 합덕에서 별다른 도움없이 소신 것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가족은 저희를 이상한 소문으로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기꾼 으로 몰아가며 급기야 당진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여 선량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신념으로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회유와 협박, 압박의 전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방송국 취재요청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와 변호사를 만난 후, 방송 취재에도 응할 예정입니다..

당진 시민여러분, 힘든 과정을 버텨왔지만, 외지인 이라는 이유로 저희의 이야기는 귀담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진실있는 용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에어스트림 투유 전주혜 드림

STEAK HOUSE “ 에어스트림 투유 ” 현재모습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 장00이 타인명의 김00의 지위승계서의 문서를 작성한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함이고, 그 문서를 권리 및 재산 행사를 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성립하는 것이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방관도 무시 못 할 사안인 것 입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지역유착과 토호세력에 의한 관계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창업팀을 이용하여 건물세탁을 깨끗이 한후, 장00 가족은 권리를 행사하며, 저희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쓰기에 (주)에어스트림 투유는 법의 심판으로, 이 사건의 불법과 비리를 밝혀서 끝까지 그 댓가를 치루게 할 것입니다.